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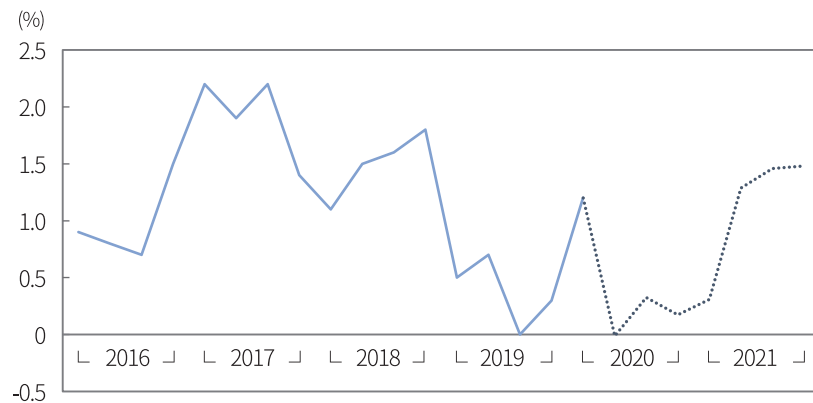
3. 통화정책 전망

□ 향후 국내 통화정책 여건과 관련하여 금년중 물가상승률은 큰 폭의 수요 부진 및 유가 하락으로 전년(0.4%)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

— 2021년에는 유가상승 및 경기회복에 힘입어 1% 초반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

- 브렌트(Brent)유 가격은 2020년중 34달러에서 2021년중 48달러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(EIA, 2020년 5월 전망)

〈그림 1-14〉 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



□ 금년 하반기중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

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된 통화정책 반응함수에 향후 성장경로 및 물가 전망을 대입해보면 2분기중 적정 기준금리는 0% 수준으로 추정

- 3월중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은행의 기업 여신금리가 하락하는 등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여전히 작동
- 향후에도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대한 통화당국의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효과와 함께 추경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상승하는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는 정책조합(policy mix)의 의미도 있겠음

- 또한 2차 감염확산으로 국내 성장경로가 크게 하향 조정될 경우 가계 및 기업부채 위험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도입할 필요
 - 가계 및 기업부채의 지표금리가 되는 은행채(5년물) 및 회사채(3년물)의 안정을 위해 해당 금리의 하단(floor)이 되는 국채금리 안정화가 긴요
 - 한국은행 또한 창립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“필요시에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”할 것이라고 언급(한국은행, 2020)

〈그림 1-15〉 통화정책과 수익률 곡선

